B-9. Gummy smile 환자에서 심미성을 고려한 치주 수술
Esthetic Periodontal Surgery in Gummy Smile

차현정, 권용수, 김현숙, 박진우, 이재목, 서조영
경북대학교 치주과학교실

환자들의 심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치과 치료시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 기능 회복과 함께 심미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치주 분야에서도 과거에는 염증, 병적 치주낭의 제거, 양호한 치태조절을 위한 구강 내 환경 조성이 치료의 우선 목적이었는데 현재는 환자의 심미, 자연스러움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재생, 심미성의 개선도 함께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상악 전치부가 심미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에서 심미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는 gummy smile, 치간 유두 소실 (black triangle), 불규칙한 치은연, melanin 색소침착, 정중 이개, 치아 파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gummy smile은 11%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gummy smile이란 일반적으로 순선이 높고, 웃을 때 치은이 많이 노출되어 보이는 경우로서 그 원인으로는 상악골 과성장(skeletal deformity), 짧은 상순(soft tissue deformity), 짧은 임상 치관(delayed passive eruption)을 들 수 있다. 이 중 상악골 과성장, 짧은 상순에 의한 경우에는 외과적, 교정적 술식이 요구되나 짧은 임상 치관에 의한 gummy smile일 경우 대부분 치주 수술로 심미 회복이 가능하다. 짧은 임상 치관에 의한 gummy smile의 해소를 위해 치관 연장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부학적 치관 길이, 부착치은의 양, 치조골과 치은의 두께와 관련된 생물학적 폭경, 치조골정의 위치, 상순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술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술 후 보철 수복을 통한 전치 형태 변화, contact point 재형성 등도 병용 가능하다.

심미성이란 주관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제시된 심미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안모, 구순과의 조화, smile line, gingival line, incisal edge의 위치, 치아 크기와 비율 등)을 구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심미성을 획득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교실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심미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gummy smile을 가진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법, 임상 치관 연장술의 이론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 본원에 내원한 gummy smile 환자 중 임상 치관 연장술 단독 또는 보철 치료를 병용하여 심미성을 개선시킨 몇몇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